

# 8월의 계란전망

강재명  
본회 지도조사부 과장

5월 이후 계란값의 불안정한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어 왔다.

나쁘지 않은 시세임에도 불구하고 한달 사이에 개당 가격등락폭이 18원까지 발생하자 향후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여 재투자를 해야할 것인가를 망설이는 생산자가 많은 것 같다.

물론 고난가 시대를 맞아 가격 진폭이 클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양계업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 무더위로 인한 소비부진이 장기화되면서 물량이 체화되고 저장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고시 시세보다 크게 밀도는 시세에서 거래됨에 따라 제도 자체가 무너지는 듯하면서 7월 하순 이후 10원 가까이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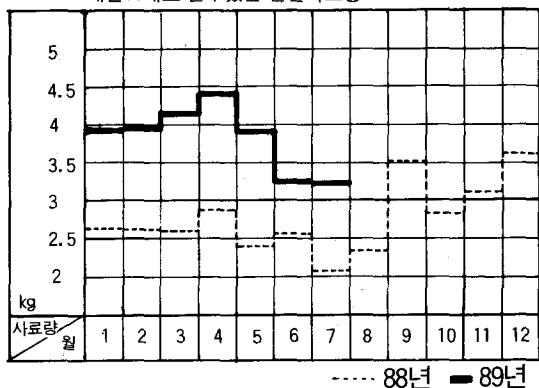
6월 산란용 사료생산실적을 보면 육추사료가 30,692㎘으로 전년도 동기간에 비해 19%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계란생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어린병아리 사료는 4,654㎘으로 49%의 증가로 2월 이후 계속 큰폭의 증가추세를 보여 년말경을 전후해서 계란생산은 크게 증가가 예상된다.

표 1. 산란용 P.S 입식현황

(단위 : 천수)

년도별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제	비고
88	52.0	21.5	16.1	27.9	65.6	38.4	8.3	41.9	2.9	24.0	49.4	55.6	403.6	실제입추수수 (수입계포함)
89	88.5	40.1	22.5	37.2	63.1	36.7								89년국내P.S 생산계획량
89	45.3	31.8	28.7	68.6	49.4	25.4	25.8	17.0	21.5	16.5	27.8	50.8	408.6	

대란10개로 살수있는 산란사료량



그러나 산란사료는 113,640㎘으로 전년 동기간에 비해 9% 감소를 보인 점으로 보아 7월까지의 계란값 호황을 잘 반영해 주고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8월의 계란값은 추석영향으로 중순 이후 다소 회복세 조짐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사료생산측면에서 보면 7월의 계란값 약세가 생산과잉 보다는 소비부진이 심했던 것으로 추측되고 8월 또한 생산의 증가는 우려되지 않고 추석의 수용증가가 예상되고 기온이 낮아져 소비증가가 예상되므로 8월 중순 이후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추석 이후 신계에서의 계란생산량이 예상되므로 앞으로 환우를 피하는 것이 계란값 호황을 유지하는 길뿐인 것 같다.

2월 이후 병아리 입식의 증가로 인한 우려로 병아리값은 계란시세에 비해 약세를 면치 못했다. 그러나 8월 중순 이후 가을추 입추시즌을 맞아 입추열기는 다소 살아날것 되지만 병아리값의 상승은 쉽지 않을것 같다.

그림 1. 대란고시가격(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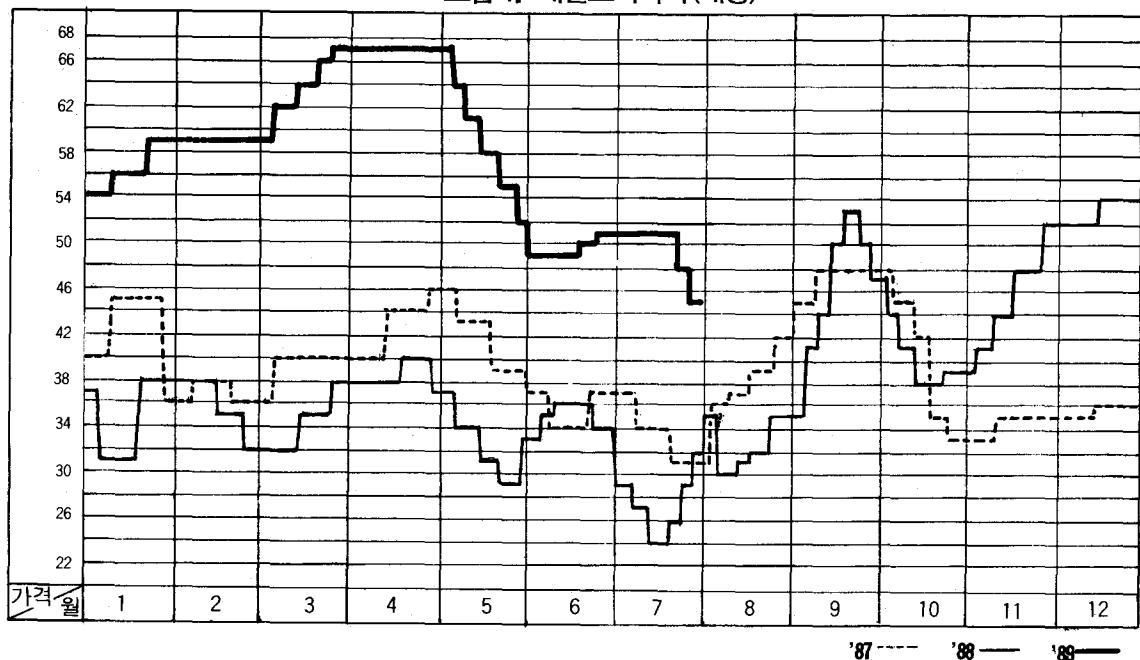


그림 2. 배합사료 생산실적

